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27일 (음력 11월 21일) 목요일

## 솔라시도 구성지구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주춤'

서남해안관광레저개발도시 (일명 J프로젝트·브랜딩명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주춤하게 됐다.

올해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에서 구성지구 부지가 탈락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도 해남군이 이 지구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탈락 이어

### 2차 공모에서는 해남군 재신청조차 안해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지공모를 내년 1월 초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4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



개성 판문역에 설치된 서울-평양 표지판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 (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로 자체 공모를 벌인 결과 나주시와 고흥군 등 2곳이 참여를 희망했다.

1차 공모에 전남을 대표해 나섰으나 탈락했던 해남군은 애초 재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솔라시도 구성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구상하고 있는 30만평(100ha) 수준의 대규모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에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라 핵심시설로 조성되는데, 대규모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구성지구 입장에서 선도시장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이 이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농민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온실 1개(8ha)당 농민 자부담이 9억 원에 달하는 것도 부담이 됐다.

특히 일각에서 특정 기업에 일방적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관계자는 "구성지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됐다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큰 구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27일 현장방문, 28일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솔라시도 구성지구는 골포장 축소하고 최대 규모인 100MW태양광 발전단지라 세계 최대 규모 255MW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포함해 에너지 자립 도시형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최대인 100ha (30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김정환 기자



### 표리부동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그룹에 비정규직인경로로 특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이 되기 전 케이티지(재)인 케이티링크스 노조 위원장을 자택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케이티 링크지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 모 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케이티스프린트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프린트는 2013년 4월 (케이티스프린트)로 분사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프린트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규직 동료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관련 인사들의 측근을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 사진=뉴시스



## 순천시, 빅데이터 평가 '최우수시' 선정

### 시·군 업무추진 평가에서 순천만의 특화 인정

순천시는 2018년 시·군 빅데이터 업무추진 평가 결과 전라남도 최우수시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의 효율적 징수 활동을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

원한 점이 호평받았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최적지를 분석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업무추진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혜안을 활용해 매주 뉴스와 SNS에 반영된 시민의 의견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순천시만의 특화된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도 주목받았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KT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순천시 관광은 힐링'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순형 빅데이터 분석으로 민선 7기 시민 체감 행정에 앞장서는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순천을 상상하고 필요한 정책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업무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광주광역시교육청

# The 청렴농이-면 더 행복하세요!

